

21세기 선진 기업 전략과 경제 분석 방법론

■ 인성론적 경제 분석 방법

- 인간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불신과,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경제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인성론적 경제 분석 방법론이 제기됨
 - 기존 방법론이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경제 분석 대상의 기본 단위인 인간에 대한 개념을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잘못 설정한 데 있음
 -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토대로 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통제가 어려운 가상 공간에서 경제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경제 분석 방법은 그 내용에 따라 행동주의적, 심리학 적, 윤리적, 제도적 접근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행동주의적, 심리적 접근은 경제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객관적 합리성보다는 각 인간의 경험에 입각한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임
 - 윤리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경제 현상의 분석과 정책 결정에 있어 윤리적인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견해임
- (시사점)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정부와 기업은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 행위를 결정하는 요소인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새로운 경제 윤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제반 경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인성론적 경제 분석 방법

이 글은 21세기에 주목받을 새로운 경제 분석 방법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지식 경제 분석 방법론' 시리즈의 두 번째로, 인성론적인 경제 분석 방법론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정리한 것임

□ 인성론적 경제 분석 방법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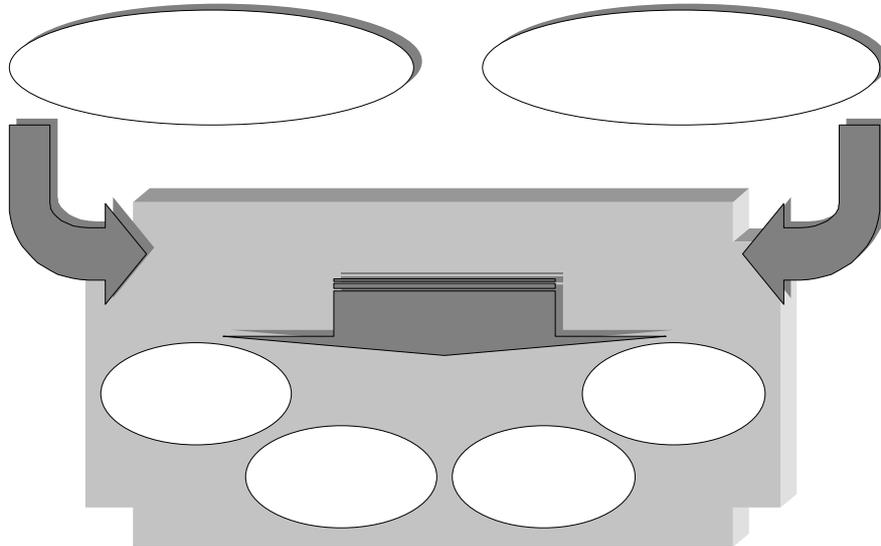
- (인간 합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기존의 경제 현상 분석 방법이 경제 현상 분석 및 미래 예측에서 한계를 보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함
 - 현실 경제와 그 행위 주체인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은 인간의 행동을 '합리성'이라는 전제로 단순화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복잡하고 기복이 심한 심리적인 측면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가정임
 -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로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경제 행위 추구가 보다 어려워짐
 - 따라서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심리 상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생김
- (디지털 경제의 성립과 윤리성의 강조)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경제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이전부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기적 경제 행위의 추구로 인한 도덕성의 파괴를 야기하는 한편, 경제 행위 주체인 인간을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소외시킴으로써 비윤리적인 자본주의를 초래하여 왔음
 -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경제 행위에 있어서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되면서 경제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본연의 인간성을 경제 현상 분석의 중점으로 삼는 새로운 경제 분석 방법들이 대두하게 됨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방법은 그 내용에 따라 행동주의적, 심리학적, 윤리적, 제도적 접근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인성론적 방법의 내용

- (행동주의적, 심리적 접근) 경제 행위 분석에 있어 이성적 측면보다 심리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견해임
 -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인간의 선택 행위가 경제이론에서 예측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완벽한 합리성을 갖춘 의사 결정자(decision maker) 모형은 정당한 이론 체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심리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인간은 최적 상태를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결정은 최적화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하에서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함
 - 따라서 사람들은 과거 경험의 축적을 통한 지식에 의존하여 경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함
 - 이렇게 볼 때 행동주의적, 심리적 접근 방법은 경제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간의 경험에 입각한 지식으로 간주함
 - 이는 지식 혹은 정보의 양이 경제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경제 현상에 대한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윤리적, 제도적 접근) 이는 경제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으며, 경제 현상의 분석에 있어 윤리적인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견해임
 - 윤리적 접근은 기존에는 실증(positive) 경제, 즉 경제학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했으나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규범(normal) 경제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 이익의 추구는 도덕적인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들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함
 - 한편 제도적 접근은 각종 경제 제도나 정책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환경의 영향에 대한 경제적 판단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 판단도 중요하다는 견해임
 - 이에 따르면 그러한 제도와 정책의 가치 판단을 통한 집행이 어떠한 경제적, 윤리적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이 중요한 과제이며, 정부 정책의 성과 평가가 대표적인 예임
 - 결국 윤리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자발적인 윤리성과 제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 행위 분석에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성론적 경제 분석 방법의 등장 >



□ 시사점

- (디지털 시대의 정부 정책) 이상에서 볼 때 디지털 시대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유통과 윤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정보의 획득 및 유통량에 따라 경제 성장이 좌우되고,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가상 공간과 가상 경제 주체는 기존의 윤리 기준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행위를 생산할 수 있음
 - 따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유용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각 경제 주체들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 알맞는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은 제도적인 여건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새로운 기업 윤리 의식 필요)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업 윤리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윤리 의식이 수반되어야 함
 - 기존의 기업 윤리는 단순히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의 개념이었음
 - 그러나 21세기의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는 이를 뛰어넘어 근로자, 경영진, 주주 등의 기업 구성 인자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는 디지털 시민 정신(digital citizenship)이 필요함

■ 광용선 주임연구원 yskwak@hri.co.kr ☎724-4058